

# 전북도, 특장차산업 활성화 나서

###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기업 생산 연계·사업화 가능성 높은 기술 개발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7일, 전북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을 하고 총 30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특장차산업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국내 중대형상용차 생산의 94%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의 상용차 산업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산업의 다각화와 상용차산업의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 축으로 특장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장차산업은 전북도에 특화되어 있는 상용차산업과 연계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이며 틈새시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전북도는 특장차 제조에 기반이 되는 상용 완성차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김제에 국내 최초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및 특장차전문단지 조성하여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특장차 생산부터 인증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특장차산업 육성의 최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 및 특장차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특장차와 특장기자재 기술개발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에 3년간 10억원씩 투입한다.

이번 협약은 그 중 '수요맞춤형 특장차 및 특장기자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장차 기업의 기존 생산과 연계하거나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데에 필요한 차량 또는 기자재 기술들을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공동개발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과제 기획과 공모,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6개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주)가자 전용희 대표는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꾸준히 캠핑트레일러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결과, 작년 약 40억원 상당의 카라반 및 캠핑트레일러를 전국 지자체에 납품하는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SUV 캠핑카를 개발하여 국내 특장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매출이 향상되어 지역의 자동차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23년 새만큼 세계캠버리와 연계한 특장차 기술개발과 시연을 통해 전북이 상용차와 특장차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선정된 기업들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종료 시까지 근접 지원하고, 개발 완료 후에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상담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특장차산업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의 시대” 정전협정 65주년 기자회견이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전주YMCA, 전북인권선교협의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북 장성급 회담 내일 '평화의집' 서

### 북측 먼저 제의... DMZ내 GP·중화기 철수 등 긴장완화 논의

북한의 제의로 남북 군장성이 47일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남북군사당국은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북측이 전 통문을 통해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먼저 제의했고, 우리측에 이에 호응함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 남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 등 총 5명이, 북측은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군 소장급)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당국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군사 분야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남북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졌다. 당시 남북은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 만에 만난 자리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원과 함께 서해 해상에서 합정간 국제무선통신망을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비무장지대(DMZ)내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공동조사와 지뢰제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장성급회담에서 DMZ 비무장화를 위한 큰 틀에서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DMZ내 GP(감시소초)와 중화기 철수 등의 의제가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예술과 사람이 머무는 곳, 이젠 일상”

## 전북 터미널 대변신 앞장

### 환경 개선으로 이용객 만족도 및 전북 관광 이미지 제고

### 문화예술 공간 조성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참여기회 확대

전북도는 2012년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을 실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내 34개 터미널의 시설물(화장실, 대합실 등)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전북도는 시군에 사업 신청을 받아 도내 6개 터미널(남원지리산, 진안공용, 장수공용, 임실강진, 순창공용, 부안공용)의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 터미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북 관광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과 함께 전북도에서는 작년부턴 전북방문의 첫 관문인 터미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을 실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에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한 고흥공용, 무주안성을 방문한 터미널 이용객,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도민, 블로그 기자단까지 솔직한 후기들이 온라인에 계

시되며 터미널의 긍정적인 변화가 안팎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좋은 호응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올해에는 익산공용, 남원공용터미널에 지역적 특색을 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업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8년은 '전라도 방문의 해'이자 10월 익산시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터미널에 조성되는 문화공간들이 이용객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 김형우 교통물류도로과장은 "터미널은 도민의 일상적 공간, 관광객이 지역을 만나는 첫 관문으로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터미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과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 휴가철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하수처리 설치신고 여부 등

전북도는 휴가철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수 불법처리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도내 120여개 야영장에 대해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7월 30일~9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 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이다.

지난해에도 도내 58개 야영장을 특별 점검해 4개소 위반 야영장을 적발, 과태료부과·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물환경관리과 허태영 과장은 "금번 점검으로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식 제고 및 도내 산과 계곡의 수질 오염 예방 등을 위해 휴가철 야영장의 오수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전문건설협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1위에 삼신기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차지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지난 27일 도내 2,175개 전문건설업체 '등록업종 수 3,559개' 대한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100억미만 50억이상) 3.4% (50억미만 30억이상) 9.2% (30억미만 10억이상) 53.8% (10억미만) 31.8%로 모두 지난해와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2018년도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 '금속구조물창호공사' (431억6248만6000원)이 차지했다

고 밝혔다. 2위는 (유)원진일미음(대표 원경의)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 (342억5936만6000원) 주)준건설(대표 한상남) '비계구조물해체공사' (306억7251만7000원)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 '철근콘크리트공사' (300억3780만9000원) (주)한일건설(대표 유운철) '철근콘크리트공사' (286억4360만8000원) 등이 각각 3위, 4위,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업체의 단일공사 수주가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금액이다. 참고로,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의 효력은 2018년 8월 1일부터 발생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